하나TV
하나증권

중국 전략 | 중국/신흥국전략 김경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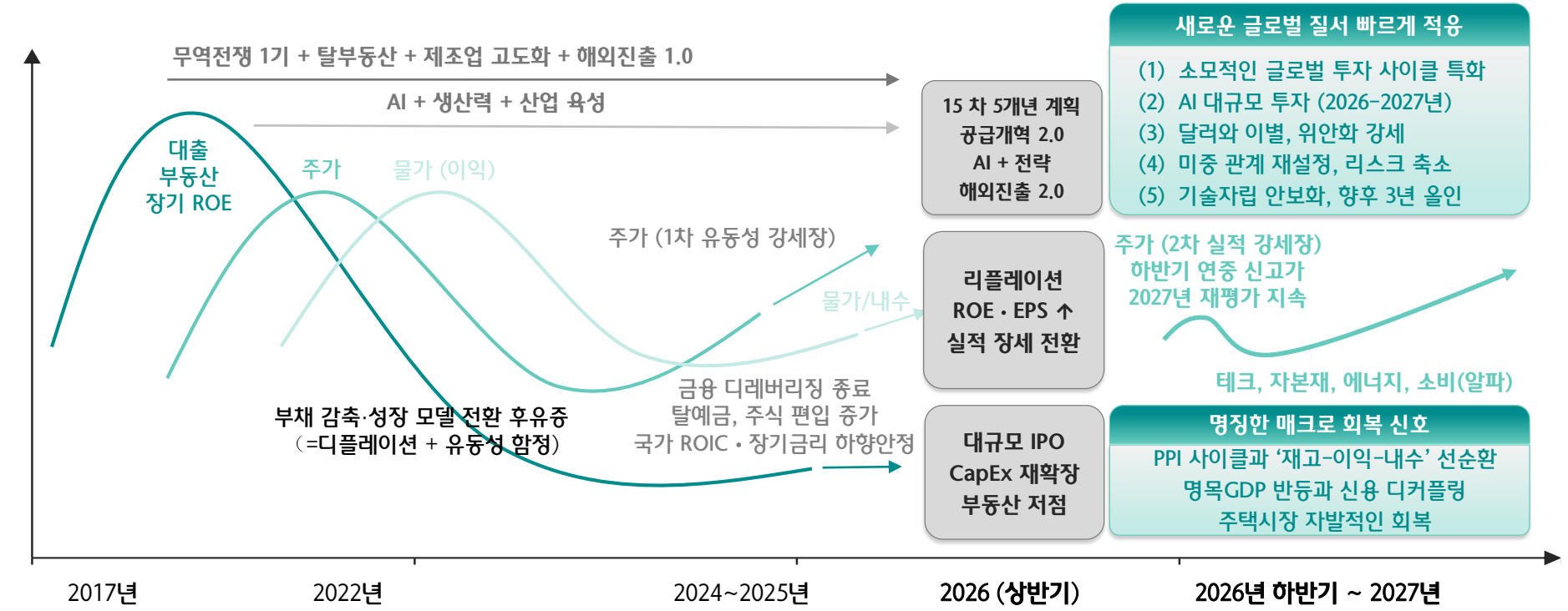
중국, 새로운 균형과 희귀한 강세장

하나증권

Summary

중국, 새로운 균형과 희귀한 강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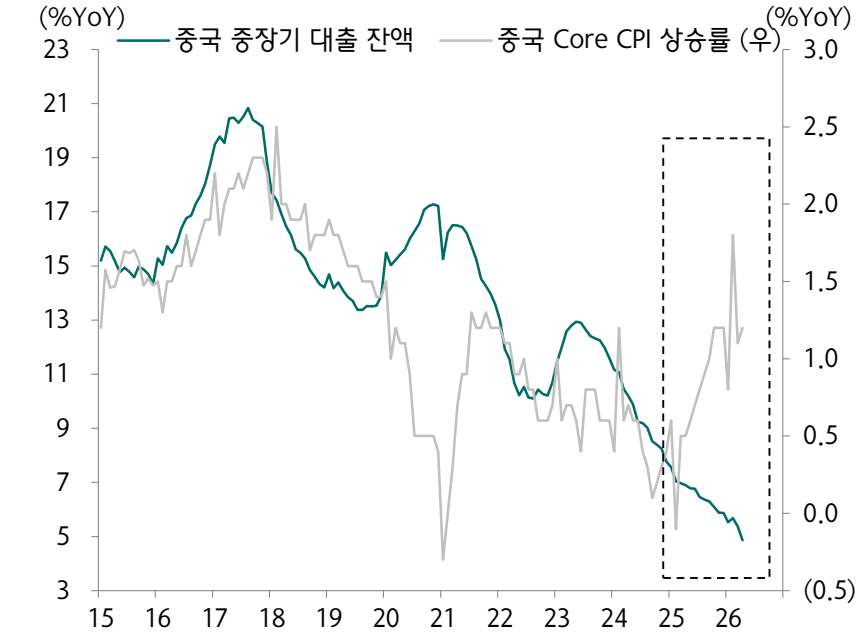
- [새로운 균형] 성장 모델 전환 후 첫 균형, 새로운 글로벌 질서 적응 : 글로벌 CapEx, AI투자, 脫달러, 미중 관계 재설정
- [하반기 모멘텀] 강력한 반내권, ChiNext 강세와 테크 지수 확산, 5개년 계획과 CapEx 확장, 4연임과 주식시장 부양
- [희귀한 강세장] 신흥국 랠리 소외 종료, 중화권 증시 2027년까지 실적-수급-정책이 견인하는 탄탄한 강세장



[새로운 균형] 중국 경제, 성장 모델 전환 이후 첫 균형 (2026년-20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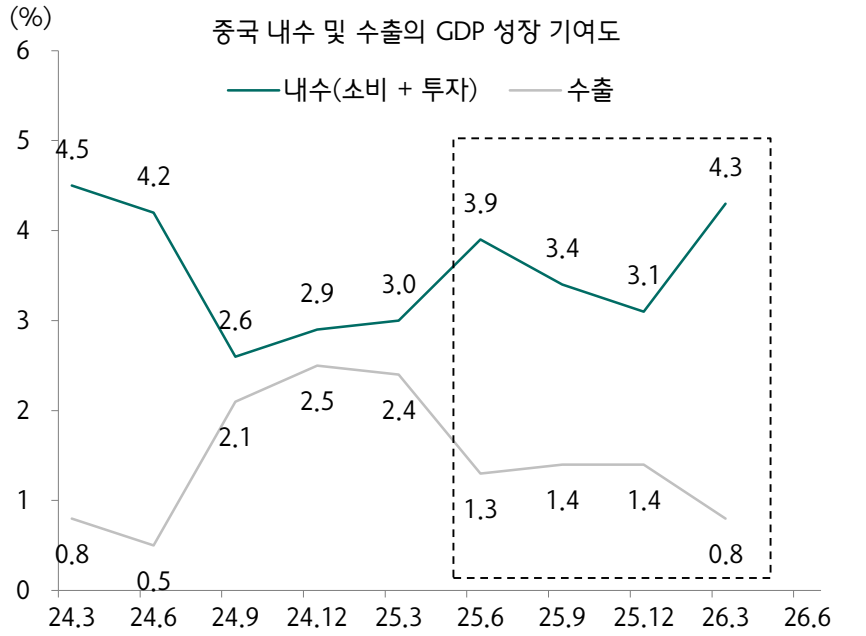
- 2026년-2027년 중국은 디레버리징과 디플레이션 국면 탈피, 최근 5년간 신-구 성장 모델 전환 이후 첫번째 균형 국면
- 탈 부동산 충격과 전통 산업(高부채) 침체의 역성장 기여는 2025년부터 하향 안정,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점진적 개선
- 2026년 물가(명목GDP)-내수-신용-산업 사이클 구조적인 반등 : 장기 비관론 축소 지속, 환율-기업이익-주가 하단 상향

중국 중장기 대출 VS Core CPI : 디레버리징과 디플레이션 최악을 통과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 GDP 성장 기여도 : 2026년-2027년 내수와 수출 점차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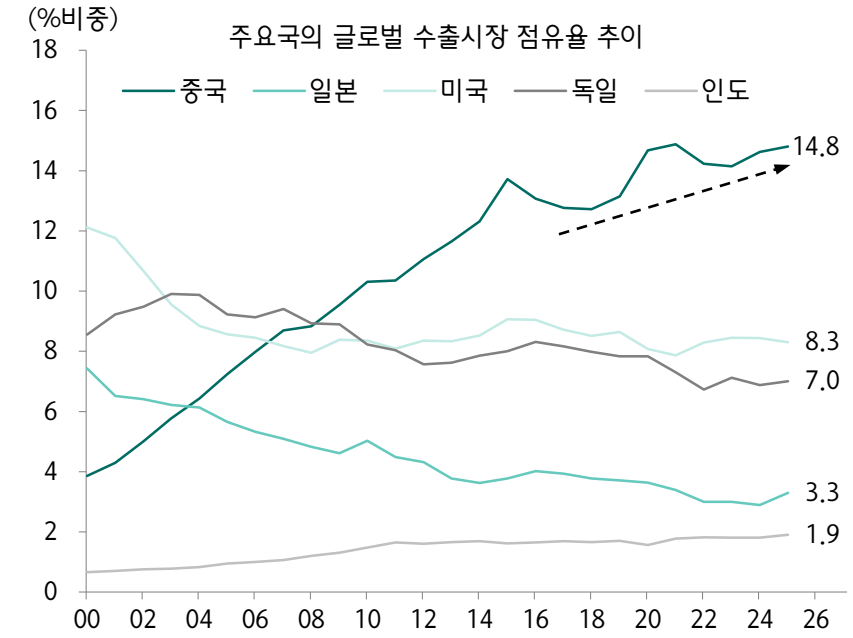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새로운 균형] 수출은 구조적인 호황 유지, 내수는 구조적인 침체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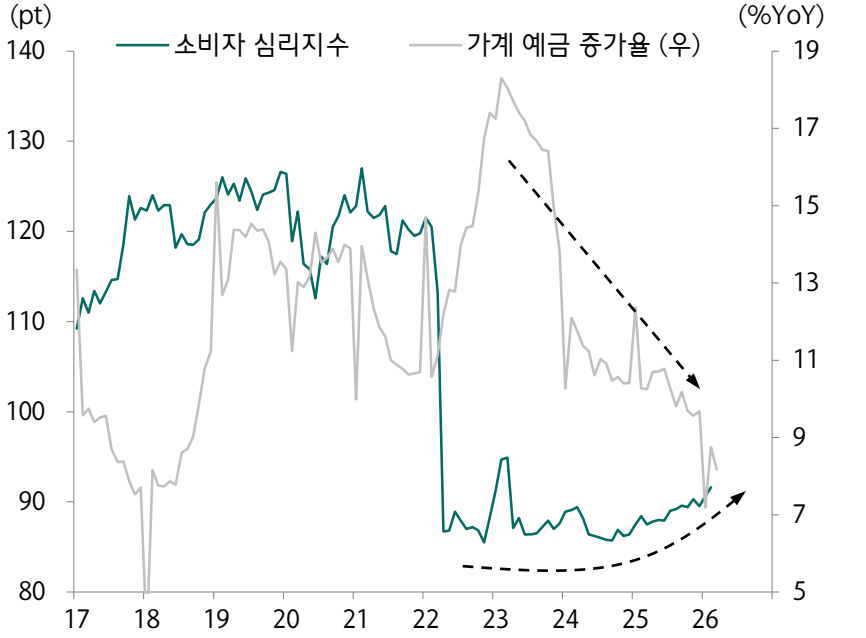
- 2026년-2027년 분기 성장률 평균 4.8%-5.2% 안정적 유지 전망, 수출은 구조적인 호황 유지-내수는 구조적인 침체 탈출
- 중국 수출은 2026년 품목 고도화 및 지역 다변화 경쟁력 유효, 중동-고유가 충격을 점유율 상승으로 만회하며 5%대 성장 유지
- 중국 소비는 2026년 대출 상환과 초과 저축 중단으로 4-5%대 성장 회복, 고정투자 정상화는 시간 필요하나 하반기 하향 안정

주요국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중국 증가세



자료: Wind, 하나증권

소비자 심리지수 VS 가계 예금 증가율 : 초과 저축 축소, 소비 심리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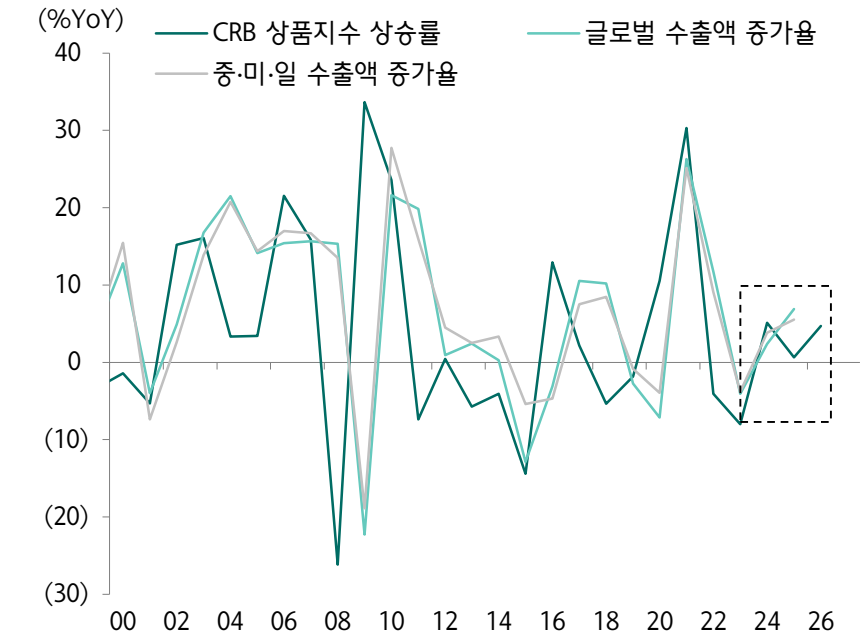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새로운 균형]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적응 : 더 '소모적인' 글로벌 투자 사이클에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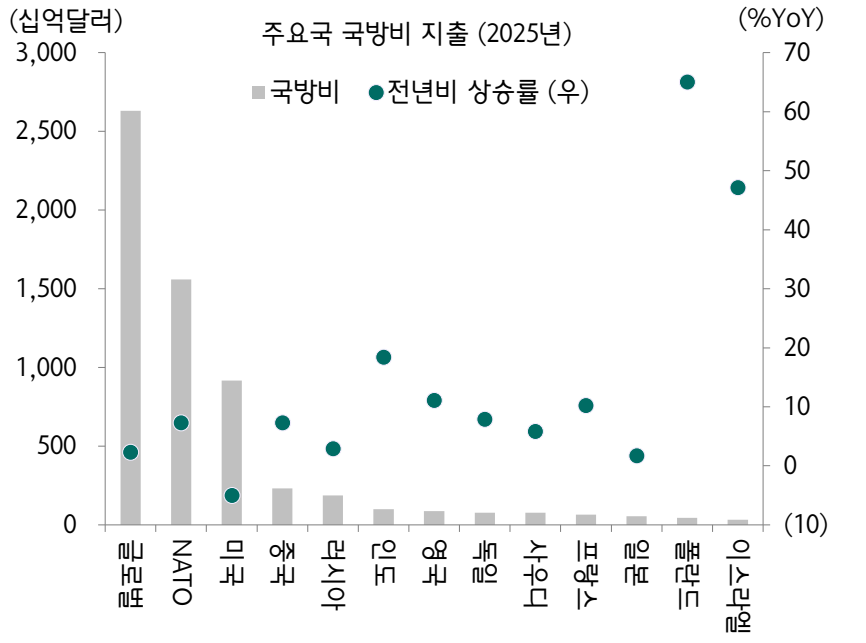
- 2026년 이후 글로벌 CapEx 사이클과 제조업 회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 AI 및 국방 투자는 중동사태 이후 더 강화될 것
- 중국 공급망과 수출은 구조적으로 글로벌 투자 사이클에 특화, 금번 사이클이 자원/소재/부품에 더 '소모적인' 점에 주목
-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비중 30%에서 향후 5년간 40%까지 추가 상승 전망 : 테크/AI/친환경/원부자재 수출 경쟁력 압도적

중-미-일 수출 증가율 VS CRB 지수 VS 글로벌 수출



자료: Wind, 하나증권

주요국 국방비 지출액 및 전년비 상승률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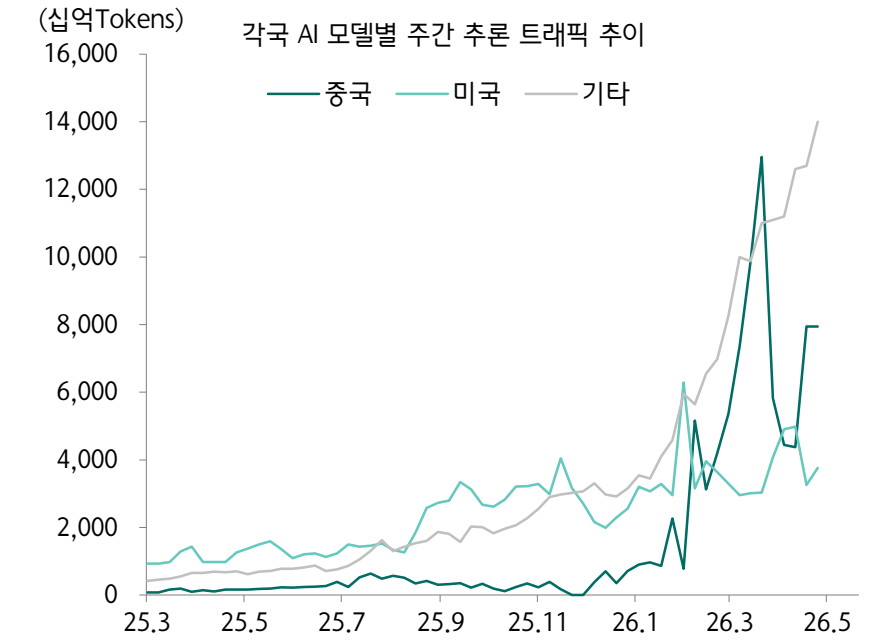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새로운 균형]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적응 : AI 투자 추격과 에너지 인프라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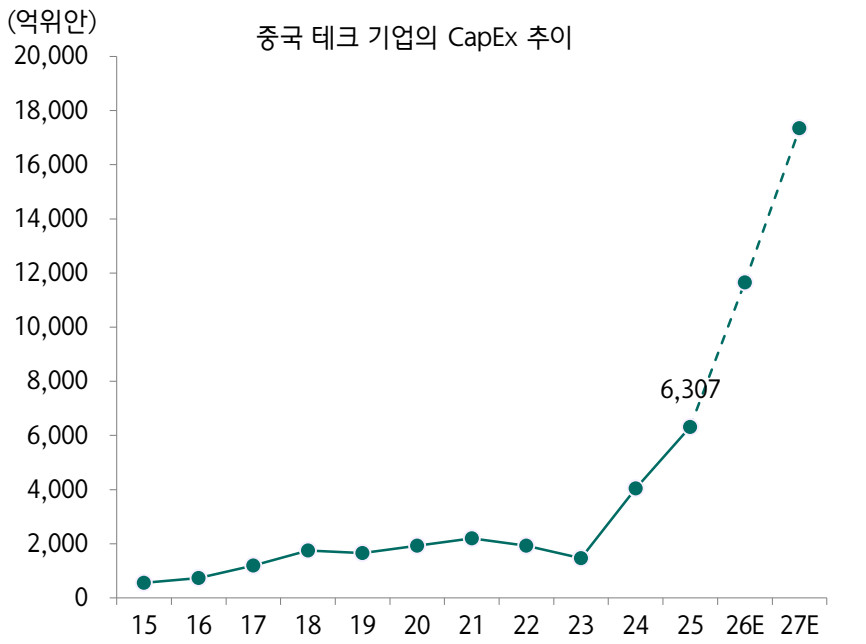
- 중국 AI 투자는 2026-2027년 본격적인 대규모 확장 구간 진입, 글로벌 CapEx 상향과 전력 문제 공존 속 점차 우위 확보
- AI 모델 상업화 가속화로 상반기 토큰 호출량 폭발하며 미국을 추월, 2027년까지 정부-국유-민간 동반 투자 확대 사이클
- 중국 AI 투자와 미국 격차는 2027년 30%대로 추격, 글로벌 AI 병목 관점에서 중국 공급망-에너지-전력 경쟁력 부각

중국 토큰 호출량 급증하며 미국 역전



주: 바이트댄스 토큰량은 Volcano Engine, Doubao, Jimeng 등 자사 서비스에서 사용된 토큰량 포함
자료: Openrouter, Bloomberg, Google, ByteDance, 하나증권

중국 테크 기업의 CapEx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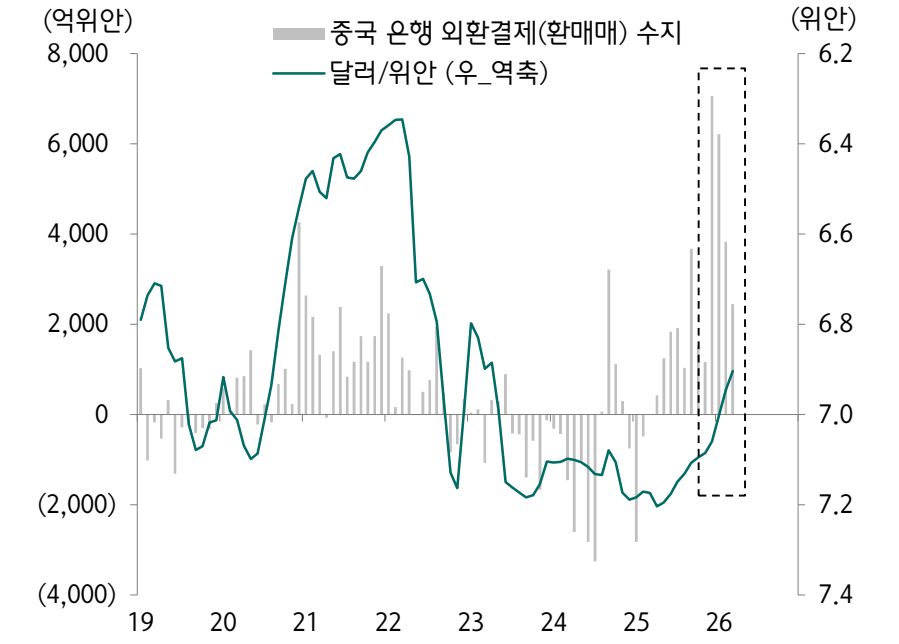


주: 2026년은 블룸버그 예상치,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샤오미·바이트댄스를 제외한 기타 기업의 CapEx가 전체 40% 비중 차지 가정, 2027년은 중국 테크 기업의 CapEx가 미국의 30% 육박 가정
자료: Bloomberg, Wind, 하나증권

[새로운 균형]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적응 : 달러와의 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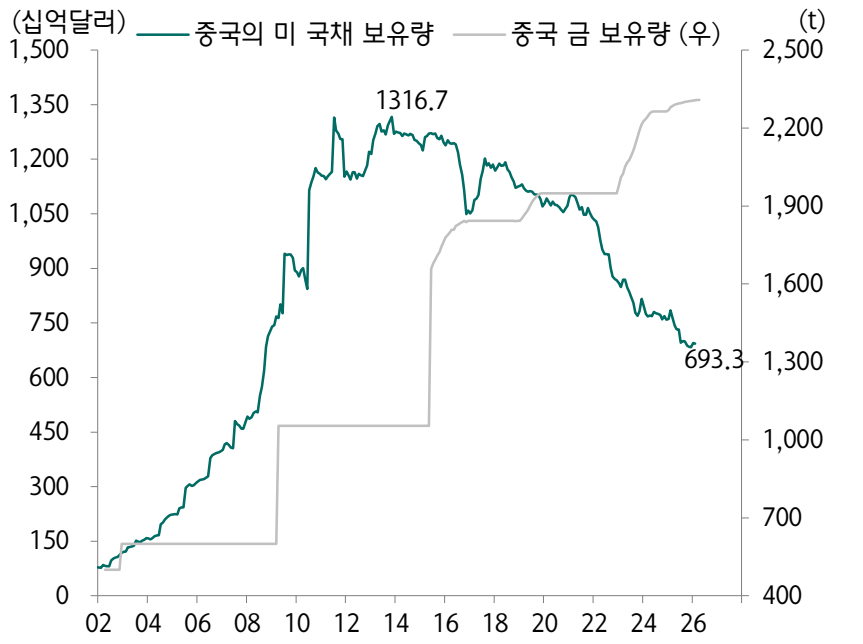
- 중국 보유 달러자산 추세적으로 축소,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 및 중동 사태 이후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달러 매력 지속 약화
- 중국 기업은 최근 2년간 초과 보유 달러를 매각하고 있으며, 인민은행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고 '美국채 매도와 금 매입' 기조 유지
- 트럼프 2기 정책과 러우-중동 전쟁 이후 위안화 국제화 행보 가속화 : 2026년 달러/위안 6.5위안 전망, 구조적인 강세 유지

중국 수출 대금 환전 비율 VS 달러지수 : 비축 달러 매각과 위안화 강세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 VS 금 보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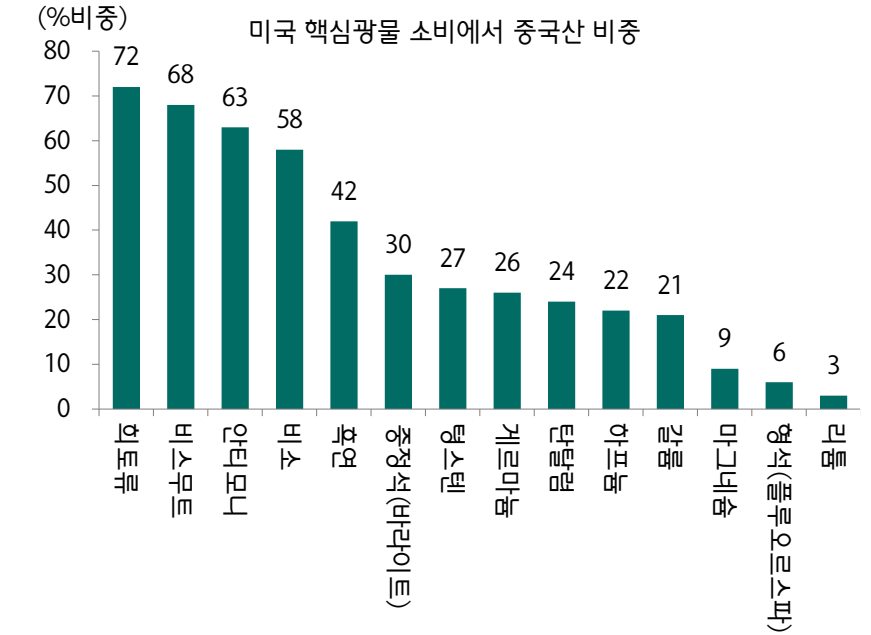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Wind, 하나증권

[새로운 균형]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적응 : 미중 관계 재설정과 제한적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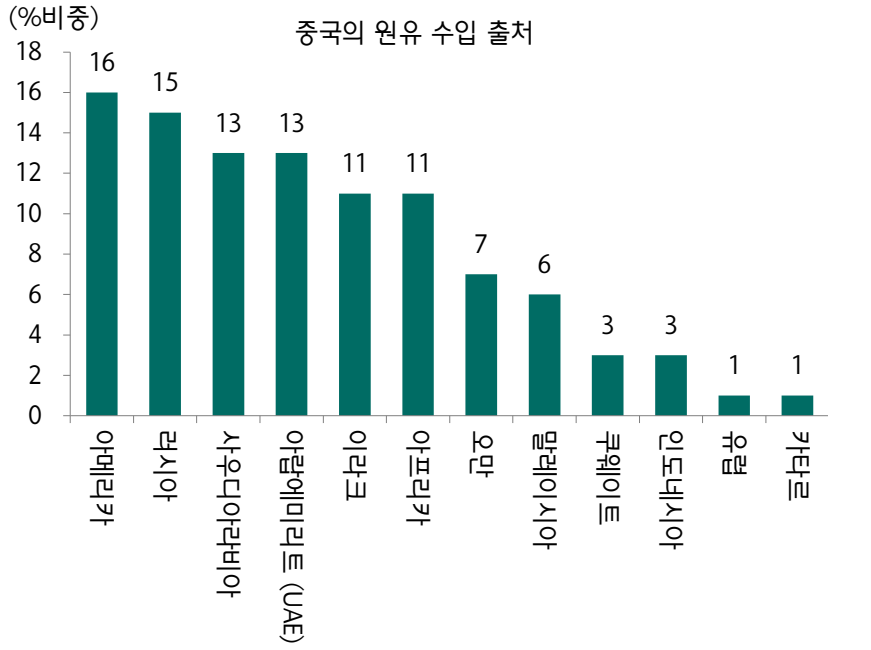
- 중국은 트럼프 2기 정책 대응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한 자신감, 생산력과 수출 경쟁력을 통한 전술적인 휴전을 유도
- 중국 중장기 무역 지형 변화 및 다극화 환경에 적응, 미중 디커플링 충격을 완충하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 유지
- 2026년 희토류와 기술 제재를 매개로 전술적인 휴전 연장될 전망, 하반기 양국의 제한적인 협력 유지하며 리스크 관리

미국 핵심광물 소비에서 중국산 비중



자료: NYT(2025.4.16), “Not Just ‘Rare Earths’: U.S. Gets Many Critical Minerals From China”, 하나증권

중국의 원유 수입 출처 : 아메리카 > 러시아 > 사우디,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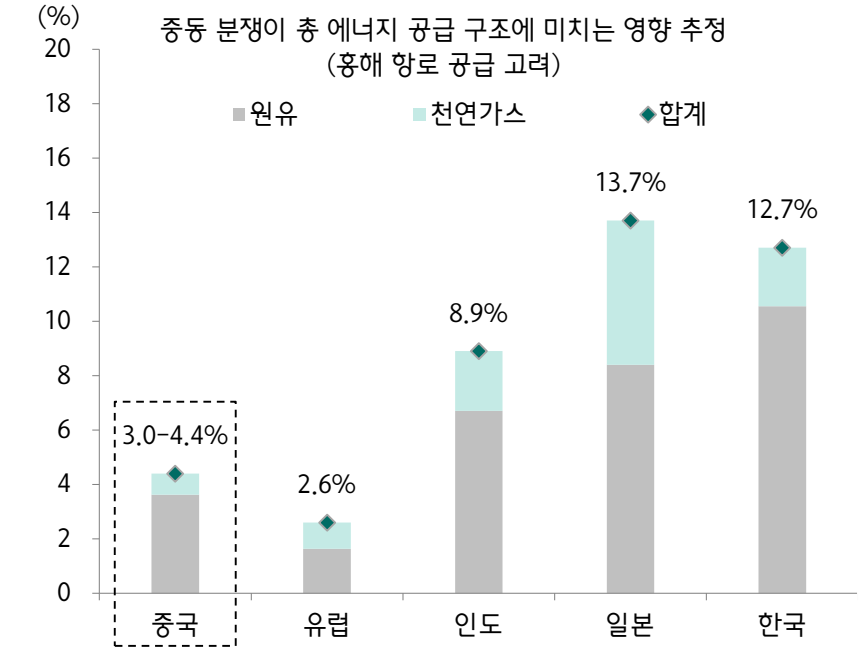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새로운 균형] 중동 사태 이후 중국 : 공급망과 경제 내구성 + 수출 경쟁력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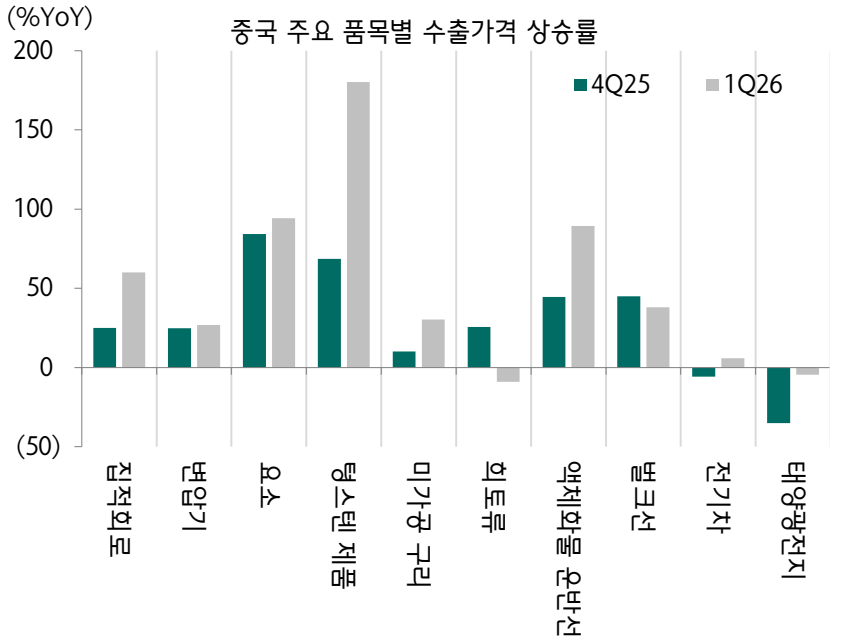
- 중동발 고유가와 대외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중국 공급망 충격은 주요국 대비 작으며 2026년 경제 내구성이 계속 부각될 것
- 석유/가스 및 수입 의존도와 해협 노출도를 고려할 때 중동 분쟁이 중국 전체 에너지 공급에 주는 영향은 3-4%로 추정
- 중국 수출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인프라 및 에너지 투자 수요에 최적화, 2026년 수출 단가 상승 및 MS 확대 통해 고성장 유지

중동 분쟁이 국가별 에너지 공급 구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주: 중국 원유 소비량의 약 16%(석유·화학제품)인 수출용 제외할 경우, 실제 영향은 약 3% 수준
자료: Wind, Energy Institute, Kpler, 하나증권

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단가 상승률 : 4Q25 VS 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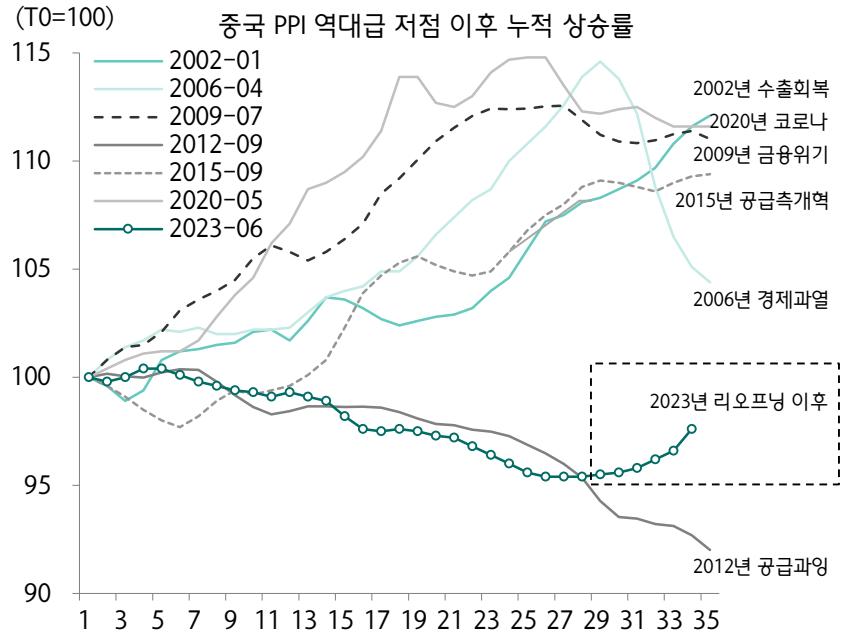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매크로 귀환] 명징한 신호 ① PPI 상승 사이클 : 재고-이익-수출가격 턴어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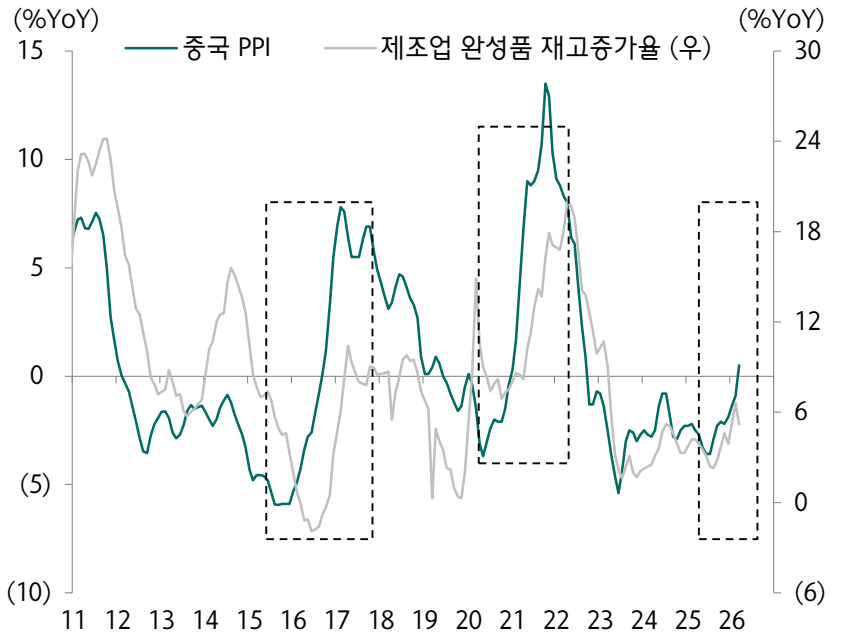
- 중국 3월 PPI 상승률은 41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2026년 리플레이션-이익-내수 선순환의 상징적인 사건
- 중동 사태를 배제해도 2026년 PPI 사이클은 '수출호조-반내권(공급축소)-탄소저감' 효과를 통해 5년 만에 가장 강한 모멘텀
- 역대 중국 PPI 상승률의 상승 전환기(2009년/2016년/2021년)에 재고-이익-수출가격 상승 사이클을 통해 주가 견인 효과 우위

중국 PPI 역대급 저점 이후 누적 상승률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 PPI 상승률 VS 제조업 완성품 재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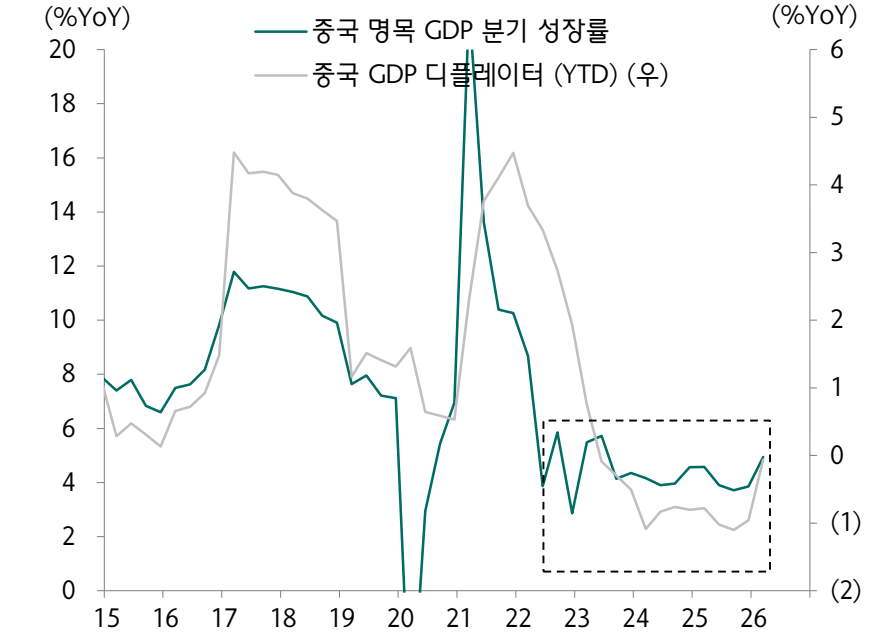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매크로 귀환] 명징한 신호 ② 명목 GDP의 강한 반등, 신용 사이클과 디커플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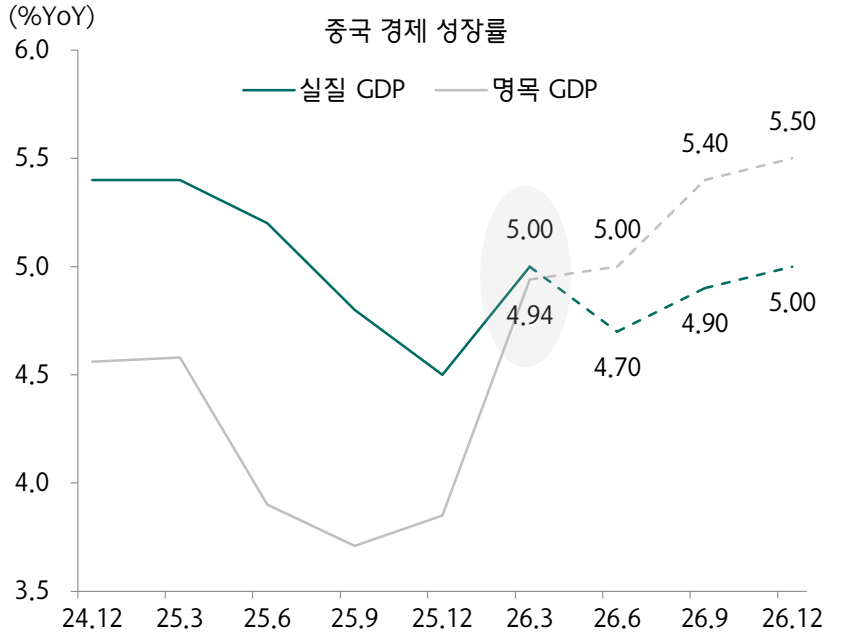
- 2026년 중국 명목 성장률(5.3%-5.5%)은 리오프닝 이후 최초 실질 성장률(5%내외)을 상회하며 디플레이션 구간 탈출
- 통상 중국 명목 성장률 회복은 재정 수입과 기업 실적 회복으로 귀결, 장기 저물가에 눌린 기업 활동과 가계 심리 변화 촉진
- 중국 가격은 2023-25년 '광범위한 하락'에서 2026-27년 '구조적인 안정과 상승 확산' 전환, 장기금리-환율-주가 레벨업 견인

중국 명목 GDP 분기 성장률 VS 중국 GDP 디플레이터 (YTD)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 경제 성장률 : 실질 GDP VS 명목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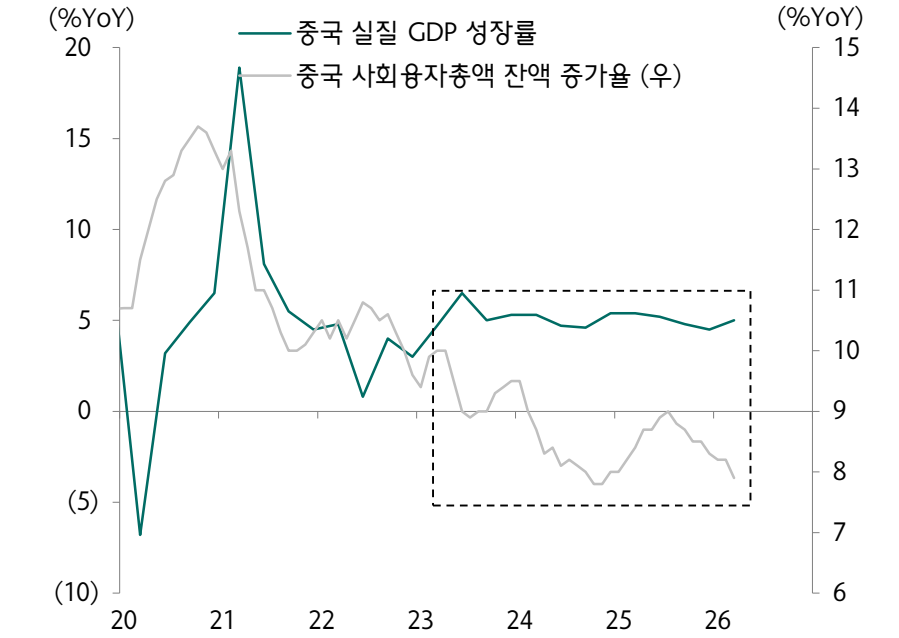


주: 2026년 2-4분기는 당사 전망치
자료: Wind, 하나증권

[매크로 귀환] 명징한 신호 ② 명목 GDP의 강한 반등, 신용 사이클과 디커플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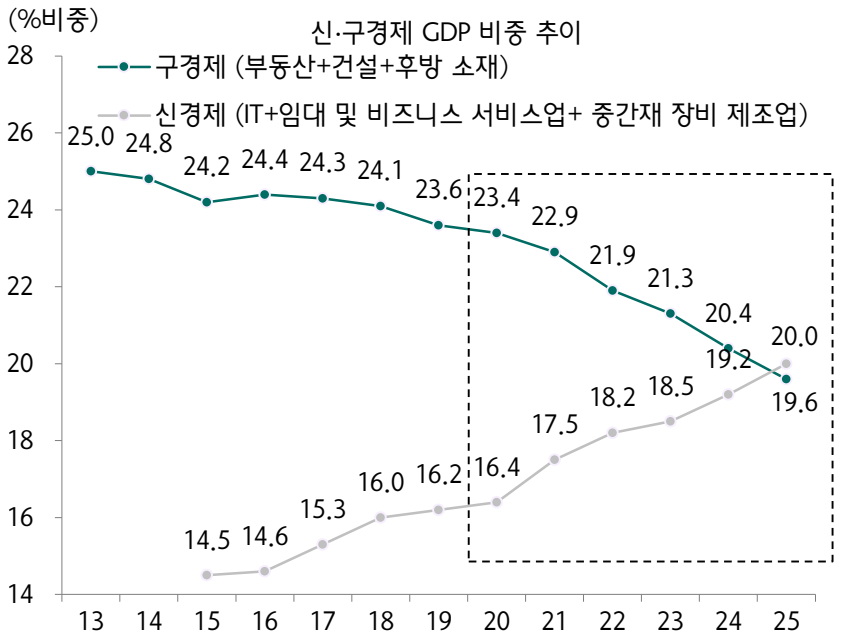
- 한편, 2026년 중국 실질GDP 성장률과 신용 사이클의 디커플링(상관관계 하락) 국면은 유지될 전망
- 중국 정부는 2025년 이후 신용 사이클 둔화 속 5%대 성장률 유지에 대해 경제 체질 개선과 부동산 충격 극복 성과로 평가
- 향후 성장률 안정과 함께 주가는 새로운 성장 모델(테크/제조업/AI/서비스)과 산업 고도화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 형성

중국 실질 GDP 성장률 VS 유동성 증가율 : 디커플링 유지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 신경제 VS 구경제의 GDP 비중 : 2025년 비중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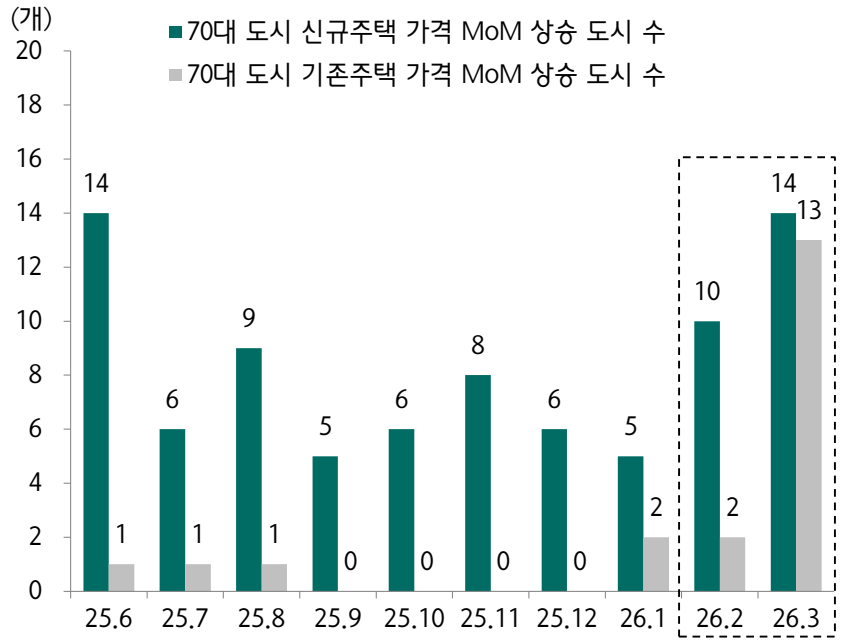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매크로 귀환] 명징한 신호 ③ 주택시장 4년 만에 자발적인 회복세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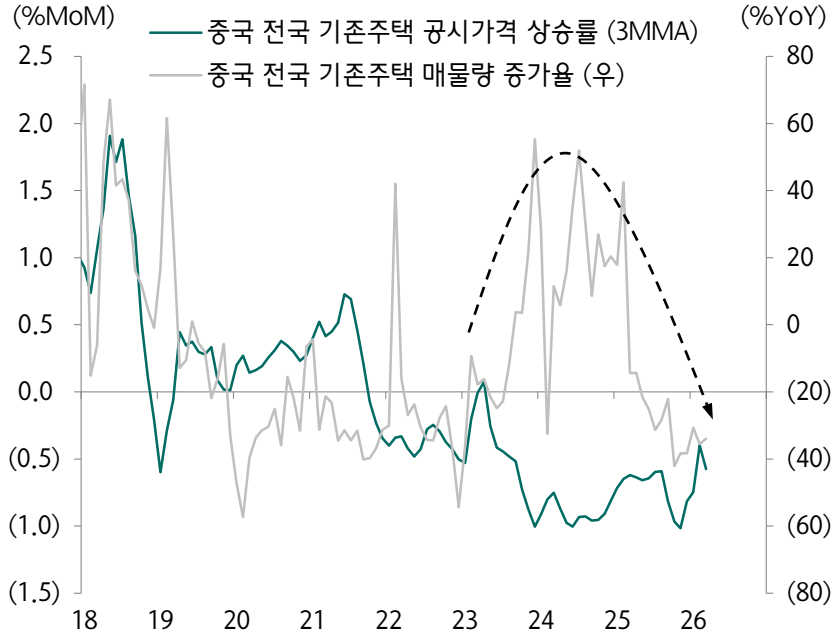
- 중국 상반기 주택시장은 최근 5년간 장기 하락 사이클의 단발성 반등과 차별화되는 회복세를 시작
- 금번 반등이 다른 이유는 실수요 중심의 자발적인 회복, 최근 3년간 대도시 매출 소진 이후 기존주택 거래가 회복을 주도
- 2026년 광범위한 회복(3-4선/건설)은 제한적이나, 대도시 중산층의 소비 회복과 부동산 밸류체인의 장기침체 탈출 시작

중국 70대 도시 신규주택 VS 기존주택 가격 전월비 상승 도시 수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 기존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VS 매물량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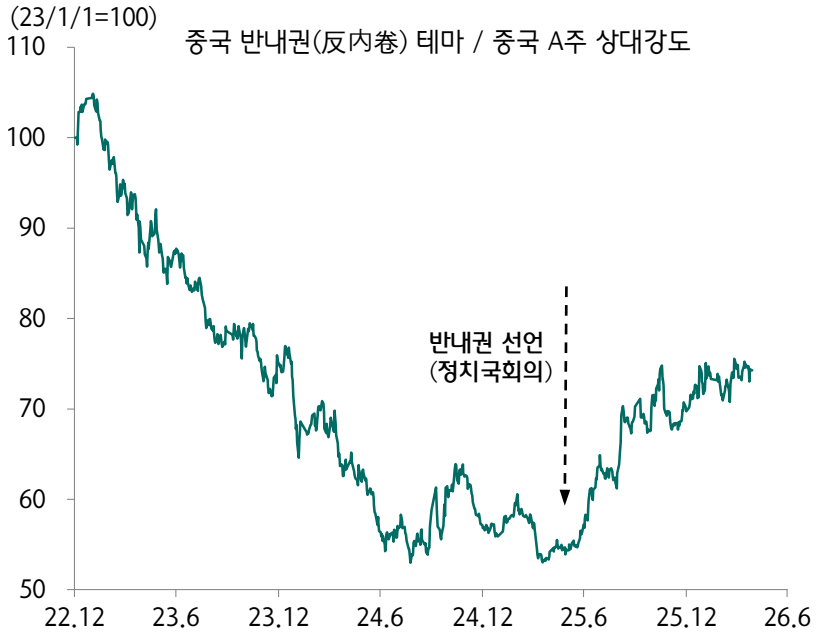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하반기 모멘텀] ① 반내권 (2016년 경험) : 정부 의지와 대내외 환경 예상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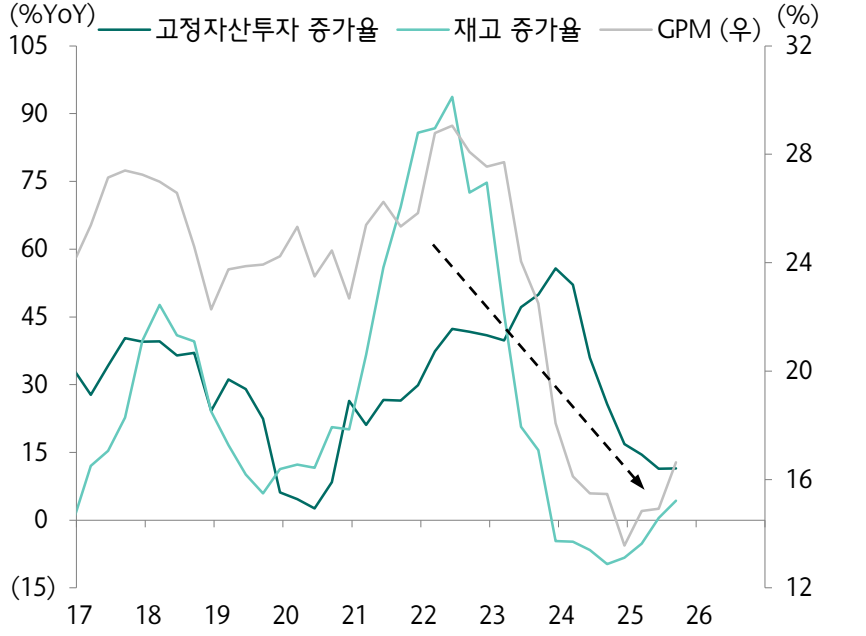
- 2026년-2027년 반내권 정책(反内卷 : 소모적 가격경쟁 억제)은 시주석 4연임(2027년 10월)을 앞두고 가격 영향 예상보다 클 것
- 공급과잉 업종 대표주로 구성된 반내권 테마지수의 연중 신고가 행진 지속, 구조적인 정책 변화와 내부 공급 사이클 기대 반영
- 2026년 중앙정부의 강력한 공급 감축과 탄소저감 의지 재확인, 정부 지원 축소와 압박 예상 상회, 지방 구조조정 신호 강화

중국 A주 지수 대비 반내권 테마 상대강도 : 2025년 7월 이후 아웃퍼폼



주: 반내권테마지수는 전기장비, 화학, 철강, 건자재, 석탄, 비철금속 등 업종 대표주 50여개로 구성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 반내권 테마지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VS 재고 증가율 VS GPM



주: 반내권테마지수는 전기장비, 화학, 철강, 건자재, 석탄, 비철금속 등 업종 대표주 50여개로 구성
자료: Wind, 하나증권

[하반기 모멘텀] ② ChiNext 신고가 (2021년 경험) :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 확신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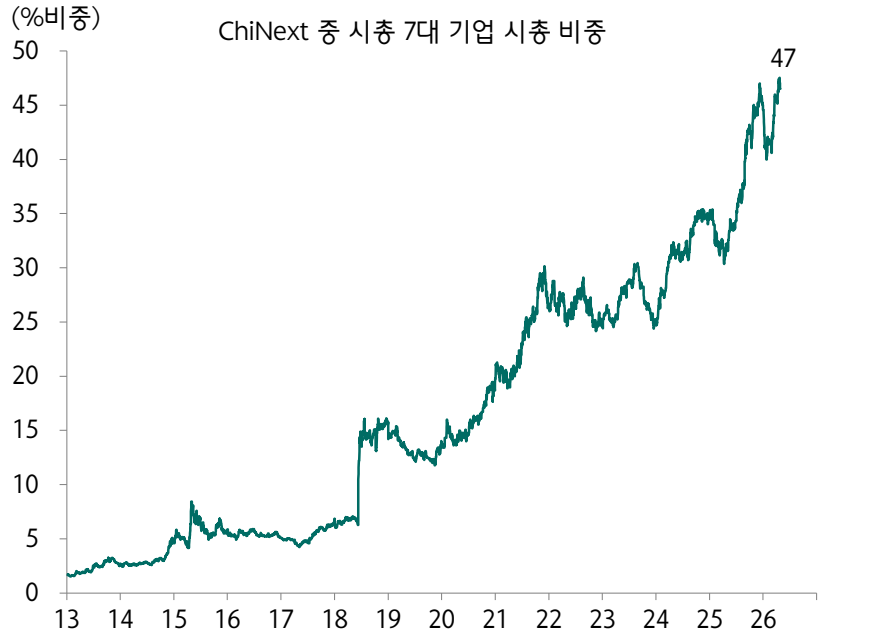
- ChiNext 신고가의 배경에는 펜데믹 이후 경제 성장 모델 전환 및 산업 경쟁력(고도화/수출)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시사
- 시총 상위 7대 기업 CATL(ESS), Innolight(광모듈), 양광전원(태양광), 승홍과기(PCB), 텐푸통신(광소자) 등 비중 50%에 육박
- 현재 시총 상위 7대 기업의 비중은 2019년 10%에서 2026년 50%까지 상승, 컴퓨팅 파워와 ESS 관련 높은 성장 기대감에 쏠림

중국 심천 ChiNext 시총 7대 기업

심천 ChiNext 시총 7대 기업		
기업명	티커	설명
CATL	300750.SZ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으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ESS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
Innolight	300308.SZ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용 고속 광트랜시버 제조사로,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공급망 핵심 업체
신이성	300502.SZ	광통신 모듈 전문 기업으로,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확장 수요 수혜
동방재부	300059.SZ	중국 대표 온라인 증권·금융 정보 플랫폼으로, 개인 투자자 기반 브로커리지 및데이터 서비스 제공
양광전원	300274.SZ	태양광 인버터 및 에너지저장 솔루션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수혜주
승홍과기	300476.SZ	고사양 PCB(인쇄회로기판) 제조 기업으로, AI 서버 및 HPC용 기판 수요 증가의 수혜주
텐푸통신	300394.SZ	광통신 부품(광소자) 전문 기업으로, 데이터센터 및 AI 네트워크 장비 핵심 부품 공급사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 심천 ChiNext 중 시총 7대 기업의 비중 (시가총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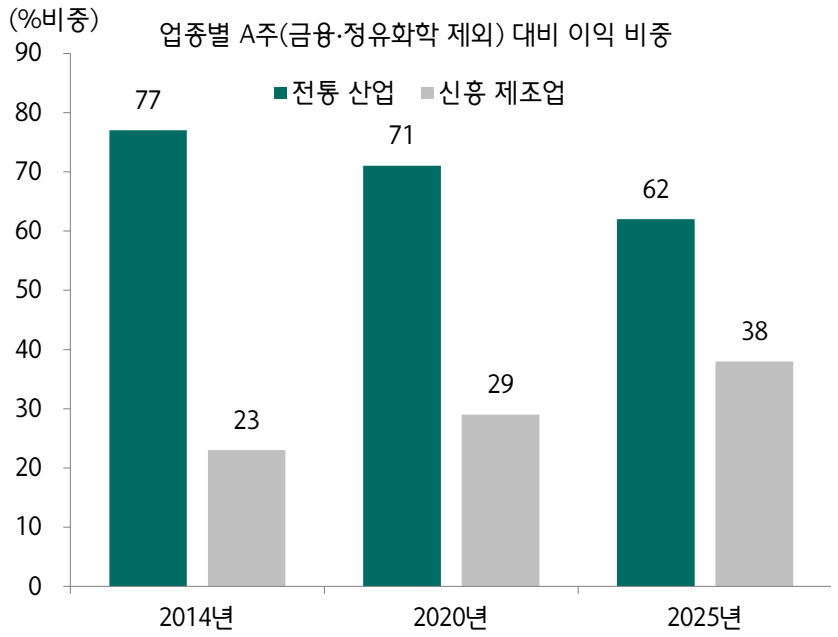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하반기 모멘텀] ② ChiNext 신고가 (2021년 경험) : '첨단제조-에너지-AI 인프라' 집중

- 2026년 ChiNext의 독주는 매크로 환경(리플레이션/수출호조/달러안정)과 산업 혁신(신에너지) 쏠림 현상에서 2021년과 유사
- 중국 제조업은 2026년 '경쟁국 대체 수요'와 '신규 수요' 확대 : 경쟁 우위 ESS, 전기차, 화학, 태양광, 철강, 조선 등 MS 상승 전망
- 하반기 매크로 환경 개선과 투자 사이클 하에 심천 ChiNext를 필두로 상해 Star50(반도체), 항셍테크(AI응용) 순환매 확산 예상

중국 업종별 A주 대비 이익 비중 : 전통 산업 VS 신흥 제조업



주: 신흥 제조업은 전자, PC, 미디어, 통신, 전력장비, 기계장비, 방산, 제약바이오 등 포함. 금융 및 정유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전통 산업으로 분류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 증시 2026년 확장 사이클 진입 10대 자본재 분야 (해외 수주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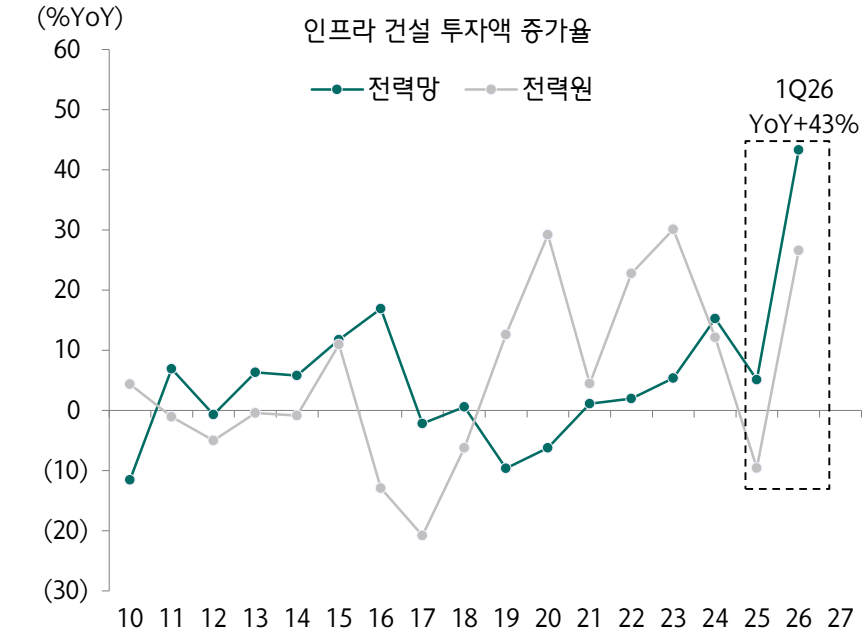
산업군	핵심 키워드	산업 및 기업 주요 상황
가스터빈	수주 증가 및 수익성 개선	• Siemens(€1460억), Jerry Group(미국향 4건) 등 수주잔고 역대 최고 • 리드타임 지속 증가
송변전	국내외 수주 동반 성장	• TBEA(수주 국내 YoY+10%/해외+80%.특히 사우디 $24억 수주) • 중국서전(YoY+35.4%) 수주 증가
조선	인도 주기 지속 장기화	• 중국 수주 잔량 5.1년치 확보(09년 이후 최고치, 25년말 기준) • 글로벌 물량 66.8% 점유, 생산 및 수출 두 자릿수 성장
해양 플랜트	풍부한 수주 잔고	• CIMC(28년치까지), 천해방무(수주 ¥140억) 등 장기 물량 확보
건설기계	해외 수요 강세	• 캐터필러 수주 잔량 $510억(YoY+71%), 북미 시장 낙관적 • 금·구리 채굴 및 중형 건설 분야 긍정적 전망
항공기	경기 상승세	• 민간·국방 수요 동반 상승 • 항공기 제조 부가가치 24.8% 성장(25년)
로봇	경기 상향 국면	• 자동화 전환 가속 • ABB는 수주 32% 급증, 일본 산업용 로봇 수주 41.1% 성장
메모리	2026년 물량 완판	• AI 자본지출 확대로 수급 타이트 • 마이크론·웨스턴디지털 등 26년 물량 매진, HBM 품귀
반도체 장비	강력한 성장 모멘텀	• AMAT 등 주요 기업 20% 이상 성장 자신 • 램리서치는 2026년 WFE 지출 $1,350억 예상(25년 $1,100억)
광모듈	고성장 및 높은 지속성	• Coherent, lumemtum 등 성장 규모에 대해 강한 자신감 • 중제육창 등 2026년 4분기 물량까지 이미 주문 접수

자료: Wind, 하나증권

[하반기 모멘텀] ③ 5개년 계획 정책 : 신형 인프라 투자 + 전방위 소비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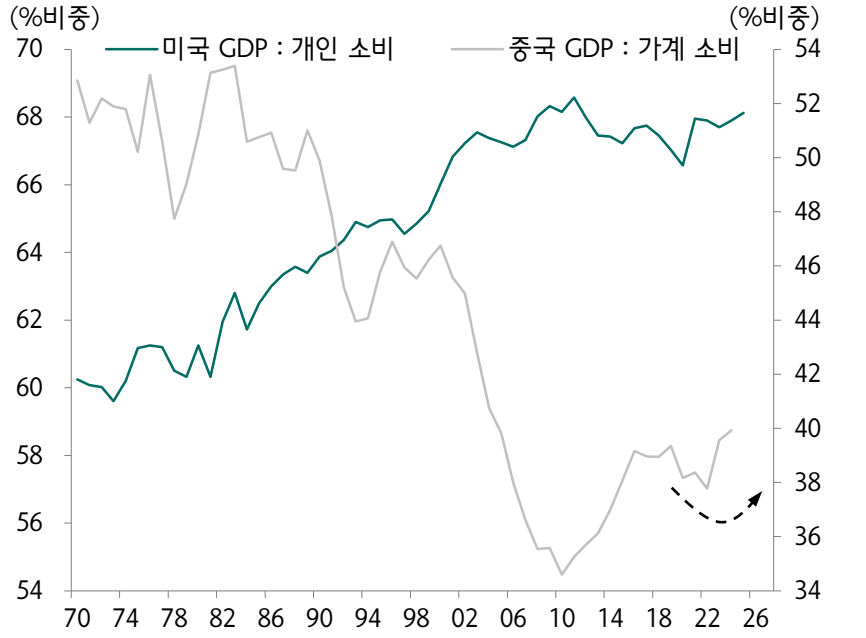
- 15차 5개년 계획 핵심 목표에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을 최우선 순위 격상, 선진 제조업을 성장-안보 강화의 근간으로 제시
- 역대 5개년 계획 1-2년차 정부 인프라 투자 급등, 금번 사이클 초기 신형 인프라(에너지/전력망/IDC/서비스) 확장 주목
-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임무에서 '대대적인 소비 촉진' 목표 격상, 단순 소비 성장률 촉진에서 중장기 시스템 구축

중국 인프라 건설 투자액 증가율 : 전력망 VS 전력원



주: 2026년은 1분기 기준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과 미국 가계 소비 GDP 비중 추이 : 향후 5년 목표치 최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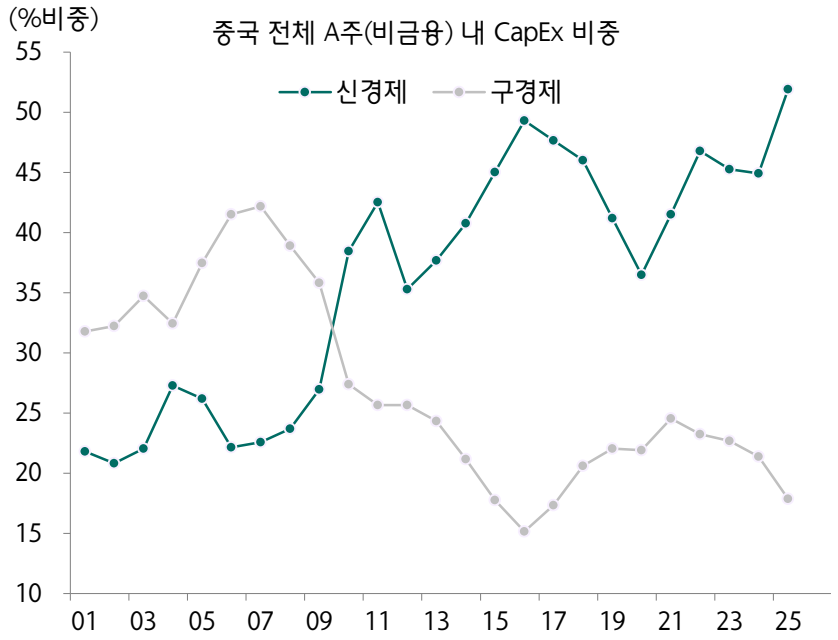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하반기 모멘텀] ④ 빅테크와 첨단 제조업 주도 CapEx 사이클 확장

- 2026년 중국 빅테크와 첨단 제조 분야가 견인하는 새로운 CapEx 사이클 반등,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관련 투자 낙관
-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과 대규모 AI 투자 확산, 중국 5개년 계획 투자와 선도기업 IPO 폭발 이후 테크-첨단제조 기업 투자가 견인차
- 특히, 하반기 과창판/홍콩 대형 IPO 재개(CXMT/유니트리/YMTC/항공우주/장비), 2027년 CapEx 사이클과 생태계 기대감 극대화

중국 전체 A주(비금융) 중 신경제 VS 구경제 CapEx 비중



주: 신경제는 IT·S/W·임대 및 비즈니스·범용장비·전용장비·전자·전기·자동차·운송장비·계측기·금속 제품 , 구경제는 부동산·건설·석탄·비금속·철강·화학·고무·플라스틱·화섬·연료 등 포함,25년 3분기 기준
자료: Wind, 하나증권

주요 테크 기업 중국/홍콩 IPO 라인업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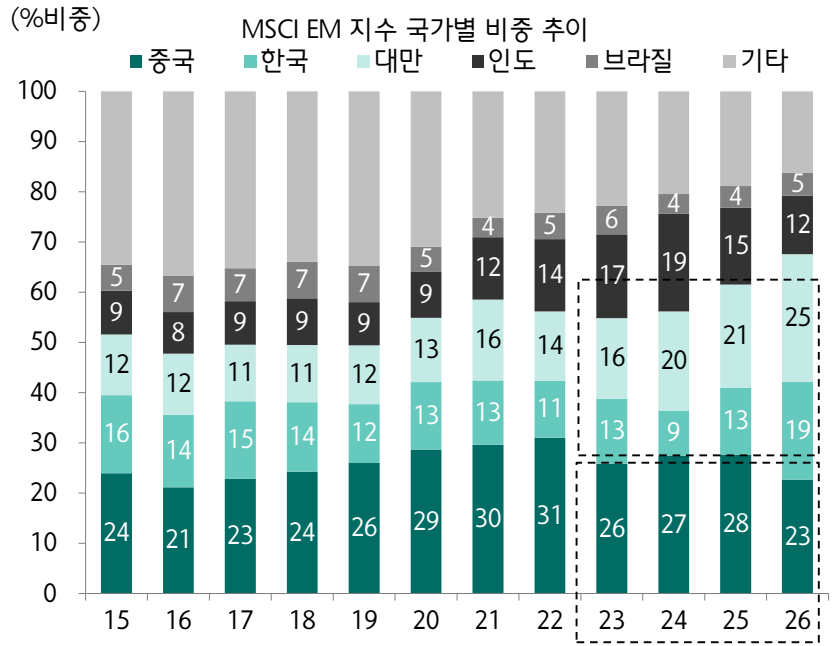
기업명	기업 소개	업종	거래소
Brain co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제품 개발사, 항저우 '육룡' 기업 중 하나	S/W	홍콩
Unitree	중국 선두 로봇기업, 항저우 '육룡' 기업 중 하나	로봇	과창판
Gigadevice	중국 선도 메모리 팹리스, NOR/NAND Flash, MCU 주력 (1/13 상장)	반도체	홍콩
AMEC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중 하나, 식각 및 증착 장비 주력	반도체	홍콩
쿤룬신	바이두의 AI 반도체 자회사로 중국 내 출하량 국산 상위 3위권	반도체	홍콩
Enflame	'국산 GPU 사소룡(四小龙)' 중 하나	반도체	과창판
CXMT	중국 '레드메모리' 3사 중 하나, D램 반도체 주력	반도체	과창판
YMTC	중국 '레드메모리' 3사 중 하나, NAND 플래시 제조사	반도체	과창판
UXFASTIC	광 통신 프론트엔드 고속 트랜시버 칩 설계 전문 중국 기업	반도체	과창판
Sunwoda	글로벌 선도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업체 중 하나	전기장비	홍콩
LANDSPACE	민간 로켓 '특례 상장' 1호로 스페이스X에 대적할 중국 기업	항공우주	과창판
CAS Space	중국 과학원(CAS) 산하 상업용 우주 발사체 기업	항공우주	과창판

주 : 중국언론 및 상장기업 발표 참고 (2026년 5월 기준)
자료: Wind, 하나증권

[희귀한 강세장] 신흥국 증시 랠리 소외 종료, 하반기부터 중화권 증시 재평가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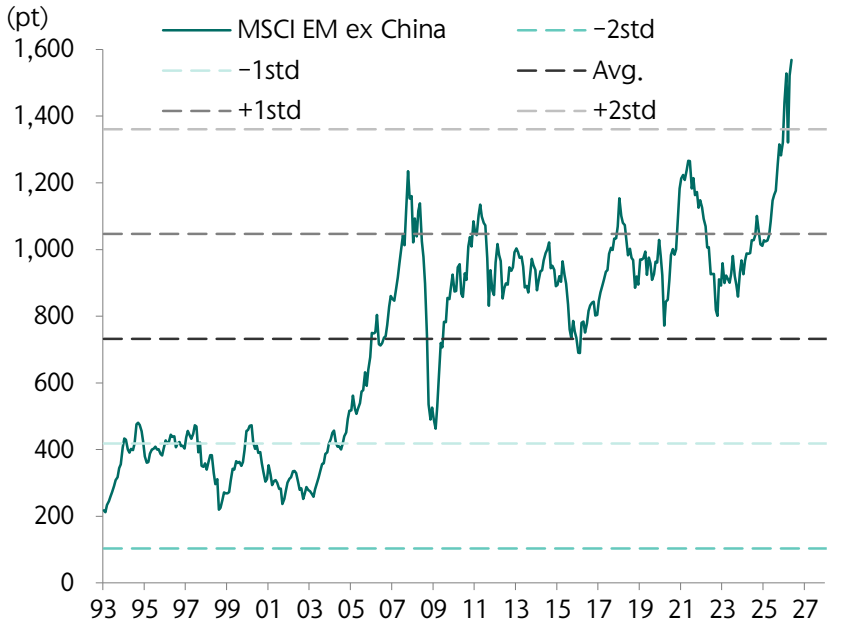
- 2025년 이후 주도 업종(반도체/HW/소재)의 국가별 노출도가 만든 국가별 불균형과 신흥국 중국 배제 전략은 정점 통과 예상
- 중국 매크로 정상화(물가/ROE/환율) 및 취약성 만회(규제/개방/미중관계)와 더불어 글로벌 질서 재편에 유리한 산업 구조 부각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재정/에너지/AI/非달러 확장 사이클 중장기 유효, 2027년까지 제조업-에너지-AI 생태계 보유 중국 재평가

MSCI EM 지수 국가별 비중 추이 : 중국 비중 2017년 이후 최저



주: 26년은 5월 5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MSCI EM ex China 주가 추이 : 하반기 중국 비중 다시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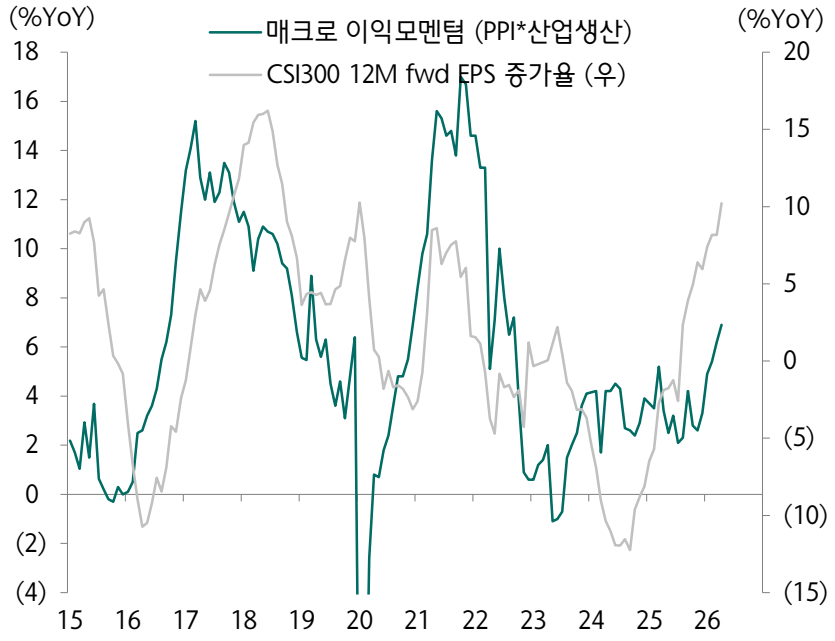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희귀한 강세장] 중국, 2027년까지 실적-수급-정책이 견인하는 탄탄한 강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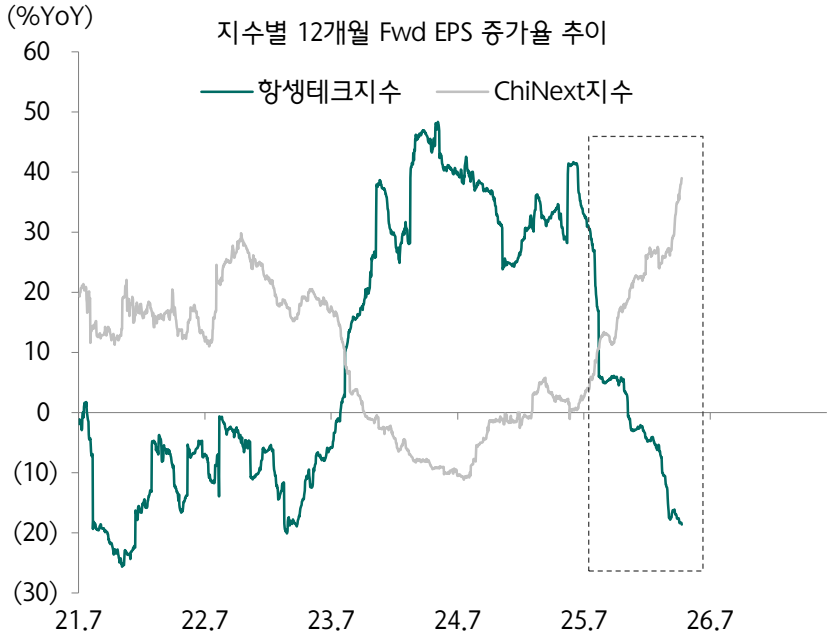
- 비중확대 의견 유지, 하반기 연중 신고가 경신 : 예상 밴드 CSI300 4,250-5,600pt(+7% 상향)와 항셍H 8,400-10,350pt(유지) 제시
- 하반기 실적 장세 전환(2026년 이익 중국 12-14%/홍콩 9%-10%)과 2027년까지 구조적인 리레이팅(기술/제조업/CapEx) 기반
- 중화권 증시의 밸류에이션과 신흥국내 비중은 중기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대비 여전히 크게 과소평가

매크로 이익 모멘텀 VS CSI300지수 EPS 증가율 : 실적 장세 확산



자료: Bloomberg, Wind, 하나증권

하반기 주요 테크 지수 차별화 상승 전개 : 창업판 > 과창판 > 항셍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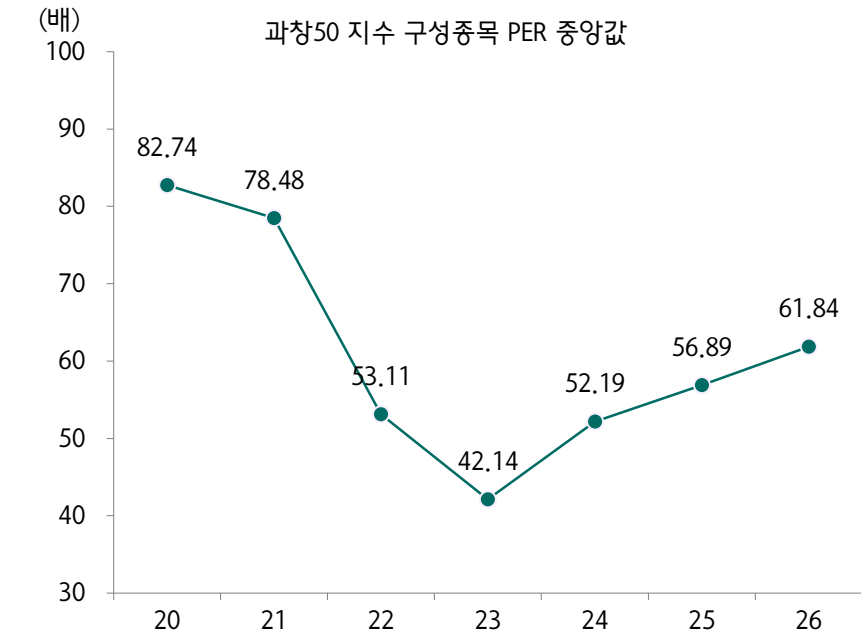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희귀한 강세장] 하반기 본토가 홍콩 대비 우위, 중장기 항셍테크지수 계속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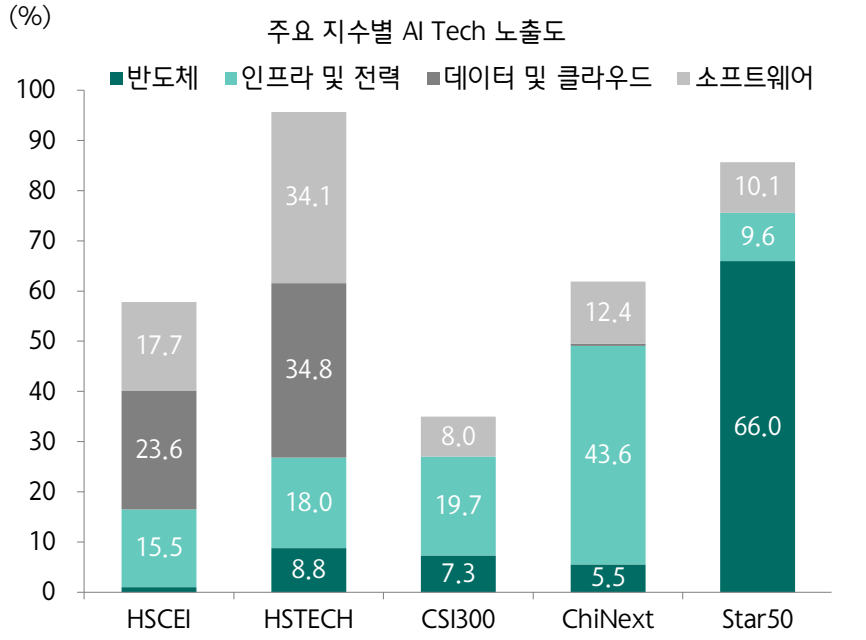
- 하반기 시가총액 구성과 수급 관점에서 본토가 홍콩 증시 대비 우위, 본토 CSI300지수와 상해 과창판(Star50) 최선호
- 실적 장세가 H/W-에너지-AI 응용-내수로 확산하면서 홍콩 중장기 매력적, 항셍테크 3/4분기 물량 부담 정점기 역발상 매수
- 홍콩 빅테크 Forward PE는 딥시크 출연 이전 12배로 회귀, 2027년까지 이익 고성장(연간+20%)과 CapEx 성과 감안할 때 매력적

중국 Star50 지수 구성종목 PER 중앙값



주 : PER(TTM) 기준
자료: Wind, 하나증권

중국 주요 지수별 AI Tech 관련 업종 노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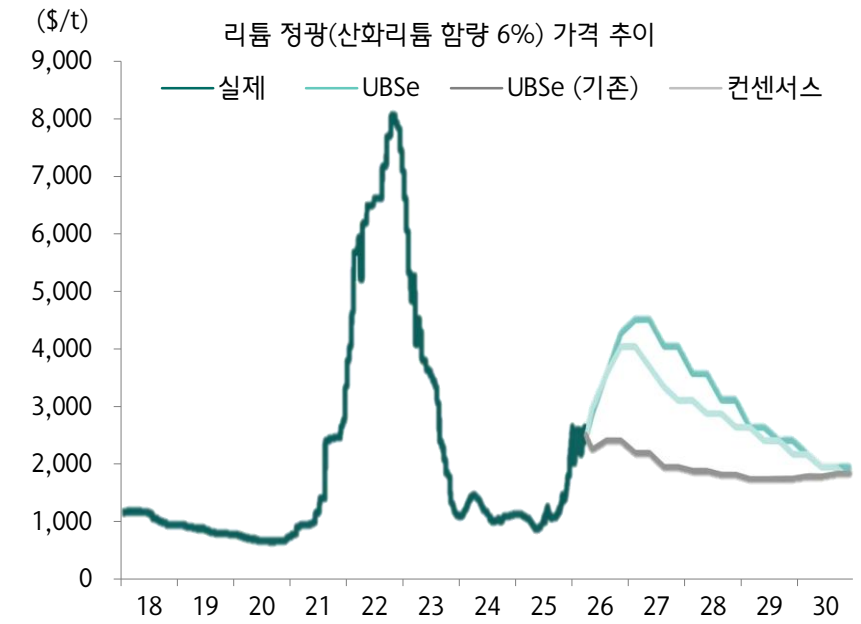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증권

[희귀한 강세장] 하반기 테크-에너지 중심축에 내수주(알파) 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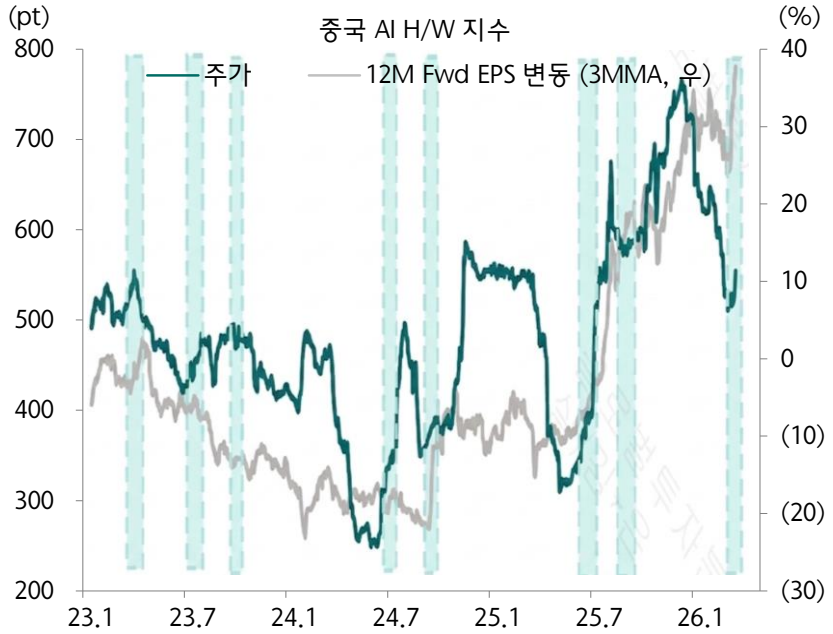
- 하반기-2027년 실적 강세장에서 테크(국산화/AI응용), 첨단제조(자본제/에너지), 시클리컬(반내권)과 소비주(알파) 선호 유지
- 하반기 중국 선호 분야는 ①고유가와 반내권(석탄/ESS/철강), ②대내외 CapEx과 실적 사이클(기계/전력망/광케이블/메모리)
- ③15차 5개년 계획 수혜군(반도체-소부장/항공우주/로봇), 소비주 알파(음식료/외식/신소비) 주목

탄산 리튬 전망치 컨센서스 상향 (UBS 전망 참고)



자료: Platts, FastMarkets, Visible Alpha Consensus, UBS, 하나증권

중국 AI 밸류체인(하드웨어) 주가와 EPS 변동 : 실적 시즌 주가 반등 주목



자료: Factset, 하나증권

[희귀한 강세장] 하반기 투자전략 추천 종목 15선

하반기 투자전략 추천 종목 15선

종목명	티커	섹터	설명	시가총액 ($백만)	PER (배,26년)	PER (배,27년)	ROE (%, 26년)	ROE (%, 27년)
CATL	300750.CH 3750.HK	발전/배터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및 ESS 시장을 선도	304,304	21.2	17.2	25.0	26.1
사원전기	002028.CH	송전망	중국 전력망 송배전 설비의 강자로,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22,520	35.4	26.3	23.9	25.4
Cambricon	688256.CH	IC 설계	중국 대표 AI 전용 칩 설계 기업	109,897	130.3	75.0	36.6	40.3
AMEC	688012.CH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전공정 핵심 장비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의 핵심 기업	34,161	71.6	51.9	13.0	15.5
중지쉬창	300308.CH	광 트랜시버	AI 데이터센터의 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광트랜시버(800G 등) 분야 세계 점유율 1위의 광통신 부품 기업	144,018	38.1	24.3	56.2	48.9
Shennan Circuit	002916.CH	PCB/CCL	중국 내 반도체 패키징 기판(IC Substrate) 1위 기업	32,218	42.2	29.5	26.0	28.9
Zhipu	2513.HK	AI 모델	중국 LLM 분야 유니콘, 대표적인 생성형 AI 솔루션 기업	52,540	-	-	54.3	70.1
샤오미	1810.HK	자율주행/로봇	스마트폰·가전·전기차 등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밸류체인을 완성한 테크 기업	104,108	22.0	16.7	11.2	13.0
JD.COM	9618.HK	전자상거래	자체 물류 시스템&직매입 구조를 강점을 보유한 이커머스 및 공급망 기술 서비스 기업	41,001	9.9	7.4	11.4	15.1
알리바바	9988.HK BABA.US	전자상거래 & 클라우드	이커머스(타오바오/티몰), 클라우드 컴퓨팅, 핀테크를 아우르는 중국 최대의 종합 IT 서비스 플랫폼 그룹	340,541	29.8	19.5	8.0	8.9
텐센트	700.HK	엔터&미디어	WeChat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게임 퍼블리셔이자 중국 대표 소셜 미디어, 핀테크, 클라우드 사업자	546,972	13.4	12.0	19.4	18.5
콰이쇼우	1024.HK	엔터&미디어	숏폼 비디오와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하여 독보적인 커뮤니티형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한 플랫폼 기업	27,412	11.0	9.6	17.1	16.7
우시앱텍	603259.CH 2359.HK	제약	글로벌 제약사 대상 신약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CRO 및 CDMO 기업	47,712	18.0	15.3	20.2	20.2
헝루이제약	600276.CH 1276.HK	제약	전통 제약사에서 혁신 신약 개발사로 전환한 중국 최대 규모 항암제·혁신 치료제 전문 제약사	51,577	37.0	31.4	13.8	14.6
Pop Mart	9992.HK	굿즈	아트 토이 업계의 글로벌 리더로 자체 IP를 활용한 캐릭터 콘텐츠 및 유통 전문 기업	28,986	13.0	11.1	51.4	42.1

주: 2026년 5월 7일 기준. 이중상장 기업은 중국 본토(본주) 기준
자료: Bloomberg, Wind,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